지역 소식통

정읍시, 출생신고 지원액 10→20만원으로 상향

정읍시가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출생아 신고 기념품 지원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정읍사랑상품권으로 대폭 상향했다.

시는 인구 및 출생 아동 감소에 따른 인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아기 이불세트를 정읍사랑상품권 10만원으로 변경한 데 이어, 최근 지원 금액을 20만원으로 추가 상향하기로 확정했다.

지원되는 상품권은 지류형(종이 형태)으로는 받을 수 없으며, 모바일 상품권으로만 지급된다. 신청은 배우자나 부모 등 친족이 대리할 수 있으나 실제 수령자는 반드시 산모 본인이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기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설 명절 대비 축산물 위생 점검 실시

부안군은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 성수기에 소비가 급증하는 식육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부적합 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2026년 2월 11일까지 진행되며, 명예축산물감시원 2명을 포함한 점검반을 구성하여 관내 축산물 취급 업소 중 설 명절과 관련성이 높은 선물세트 및 제사 음식 취급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적정 처리 여부 △식육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냉동식육의 불법 해동·판매 여부 △포장육 및 선물세트 표시기준 준수 여부△영업장 위생관리기준 및 자체위생관리기준서 운영 여부 등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형 통합돌봄사업 본격 추진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실행계획 의결… 올해 지역특화 서비스 10종 진행 예정

정읍시가 지난 30일 시청 구절초 회의실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 심의 회의를 열고 '2026년 정읍시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는 의료·요양·일상생활·주거 4개 분야 관계자와 학계·정신 전문가 등 총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협의체는 통합돌봄사업 관련 실행계획과 시책을 심의하고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체로 연 2회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서를 중심으로 △2026년 통합돌봄사업 추진사항 △의료·요양 등 분야별 서비스 연계 방안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부서 및 기관 간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 실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통합돌봄사업에는 총 6억 4300만 원(국비 3억 2150만원, 도비 9150만원, 시비 2억 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시는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체 개발한 '지역특화' 서비스 10종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지역특화 서비스로는 방문 건강운동·방문의료 활성화 지원(보건의료), 틈새요양 돌봄 서비스, 건강맞춤 영양식사·방문목욕, 안심 주거환경 개선 등이 있으며 올해 500여 명의 대상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내실 있는 실행계획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과 모든 시민이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는 정읍형 통합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재해없는 안전 도시 조성 박차

올해 총 216억원 예산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 추진

정읍시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올해 총 216억원(국비 5억, 도비 50억, 시비 151억)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 정비사업에 나선다.

시는 올해 하천 재해 예방을 위해 감곡면 일원의 감곡천(감곡·통석지구) 지방하천 정비공사 7.51㎞ 구간에 77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소성면 문언소하천을 포함한 8개소, 총 8.98㎞ 구간의 소하천 정비공사에도 83억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요 사업 대상지는 △소성면 문언소하천(1.47㎞) △옹동면 내동소하천(0.78㎞)△감곡면 방교소하천(2.33㎞) △소성면 보화소하(0.93㎞) △덕천면 상학소하천(0.57㎞)△신태인읍 산정소하천(0.30㎞)△이평면 산매소하천(0.60㎞) △감곡면 오단소하천(2㎞) 등 총 8개다.

시는 시설 정비뿐만 아니라 기존 하천의 기능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약 56억원(국비 5억, 도비 6억, 시비 45억)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준설 작업과 자생 수목 제거, 제초 작업 등을 병행해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230억원을 투입해 지방하천 21개소(13.1㎞)와 소하천 4개소(2.32㎞)의 정비를 차질 없이 완료하며 재해 대응 능력을 높인 바 있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2026년에도 재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천 환경을 가꿔 더욱 안전한 정읍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인돌유적지 탐방 위한 '모로모로 열차' 첫 운행

고창군, 지역주민·관광객 함께한 체험형 시승식 '큰 호응'

고창군이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한 탐방열차인 신규 '모로모로 열차'를 선보인다.

지난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 일원에서 관광객과 지역주민이 함께한 체험형 시승식을 열었다.

고창의 대표 관광지인 세계유산 고인돌유적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관광콘텐츠로서 새로운 '모로모로 열차'의 출발을 알렸다.

신규 '모로모로 열차'는 리뉴얼된 모로모로 캐릭터와 새로운 캐릭터인 '고창이와 친구들'로 디자인되었고, 관람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냉·난방기와 안전발판 등이 추가됐다. 또한 열차 상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기적소리와 연무 등도 연출된다.

한편, 지난 2000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유적지는 탁자식, 바둑판식, 개석식 등 다양한 형태의 고인돌이 공존하고 있어 선사시대 고인돌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규명하고, 세계 거석문화 이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으로서 자리매김했다.

고창군수는 "고창 대표 관광지인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유적지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 신규 '모로모로 열차'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관광객과 지역주민, 아이들에게 세계유산이 지닌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전승과 유산 투어리즘으로서 관광 모델을 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치유문화도시 고창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 성료

고창문화관광재단·문화도시센터, 문화도시 고창의 미래 비전 공유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가 공동 주관한 '2026 치유문화도시 고창 신년 문화예술 컨퍼런스'가 지난 30일 고창동리국악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온갖 문화와 예술이 일제히 피어난다는 의미의 '백화제방(百花齊放)'을 주제로 열렸다. 치유문화도시 고창이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에서는 생활문화예술 동호회들의 오카리나, 플루트 및 색소폰 연주가 이어지며 누구나 즐기는 생활문화예술의 매력을 선보였다. 또 지난해 제38회 전국어린이판소리왕중왕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이승우 군의 판소리 공연이 펼쳐져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곧바로 이어진 2부에는 문화예술 기획자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진도문화도시센터의 박종필 사무국장은 '아리랑 유랍단을 통한 전통문화 콘텐츠화'를 주제로 진도군의 유네스코 문화자원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유후스튜디오의 맹정민 대표가 민·관 협력 공연형 야시장 사례로 '목포역전야시장' 운영 사례를 발표하였다. 정성구 전주시립극단 기획실장은 로컬 콘텐츠 기반의 공연 제작 사업인 '쇼 비즈니스' 사례를 공유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끝으로 고창문화관광재단·고창문화도시센터의 우수 사업 사례가 발표되었다. 한미자 스토리텔러는 고창 서해랑길 사업을 소개했으며, 신미희 문화예술 기획자는 문화예술 창작활동 활성화와 관련해 '고창 갯벌을 일구는 손'을 주제로 한 콘텐츠 사례를 발표하며 고창갯벌 위에서 이어져 온 고창인의 삶과 문화자원을 들을 수 있었다.

조창환 고창문화관광재단 상임이사는 "앞으로도 고창문화관광재단과 고창문화도시센터의 2026년 문화예술 정책 수립과 미래 비전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 사업 본격 가동

4년차 맞아 제도 안정화… 소비농가 만족도 97% 정책 효과 입증

부안군은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서비스가 4년 차에 접어들어 제도 안정화에 들어갔으며 2026년 배송사업자를 선정하고 올 사업 시행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양곡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소비농가까지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농가가 직접 운송해야 했던 시간적·경제적·물리적 부담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특히 고령, 영세 축산농가 등에 정책 체감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2025년 소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군 자체 설문조사 결과 97%가 운송 편의성 면에서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고 답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5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비를 증액하고 현금으로 부산물 대금을 납부·수령하던 것을 계좌 입금이 가능하게 해 배송 효율성과 서비스 안정성을 높였다.

군은 앞으로도 배송 일정 관리 고도화, 농가 맞춤형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정부양곡 부산물 배송사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는 시범사업 성격이 강했지만 3년간 운영 경험과 농가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했다. 올해는 예산을 확대하고 농가 및 업체 불편사항을 개선해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오르며 본격 가동을 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